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지각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The Effect of Children's Emotional Support and Mother-Child Communication
on the Low-Income Female Householders'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교 인간발달학과
박사과정 이 소 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 수 옥 선 화

Dept. of Human Development,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 State Univ.

Doctoral Course : Lee, So Yo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Ok, Sun Wha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개념 정의 및 관련 연구 고찰 | VI.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변수 정의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influence of positive interactions between the low-income female householders and children on the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ing:

First, there were high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low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 low-income female householders who perceived high level of children's emotional support. The difference from the existence of the low-income female householder's husband was not found in the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fter controlling for the low-income female householder's health, the differences were maintained.

* 이 논문은 1999년도 두뇌한국21 사업 핵심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Second, the low-income female householders who communicated with their children open-heartedly felt higher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lower level of depression than those who had less communication with their children. The difference from the existence of the low-income female householder's husband was not found in the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fter controlling for the low-income female householder's educational level and health, the differences were maintained.

Finally, the low-income female householders felt higher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lower level of depression when they listened to their children closely, and were satisfied with mother-child communication.

주제어(Key Words): 저소득층 여성가장(low income female householder), 자녀의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 from children), 모-자녀간 의사소통(mother-child communication),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우울감(depression)

I. 문제 제기

현재 우리 나라는 산업화, 경제 위기, 이혼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족 구조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대량실업에 따른 생계 유지자 부재,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등 여성가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속해 있다. 특히, 이러한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낮은 임금 수준과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IMF 경제위기 이후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영란, 1999).

특히, 이러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한 유형인 편모들은 배우자 상실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원의 축소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울·자존감 저하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와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신화용, 조병은, 1996; 이배용, 박진숙, 황은자, 정현숙, 이제진, 1996; Davies, Avison & McAlpine, 1997).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 내 역할 부담과 직업 역할 수행으로 인한 이중 역할 부담, 사회적 지원 체계의 부족 등 복합적 문제들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이 겪게 되는 정서적인 어려움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하거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서는 자녀를 꼽을 수 있다. 특히, 편모의 경우에는 자녀를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며,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을 때 이혼 후 적응 수준이 높아졌고 가족스트레스도 덜 지각한다고 하였으며(김경신, 김오남, 1998; 박은주, 김경신, 1995; 신화용, 조병은, 1996), 저소득층 여성가장도 자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이재림, 옥선화, 2001). 따라서 중산층에 비해서 자원이 결핍되어 있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자녀의 정서적 지원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저소득층 여성가장 가족의 경우 가장의 부재로 인하여 가족 내 역할 관계 및 권력 관계를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한 가족원들이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족원간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는 의사소통이 가족원간의 관계를 형성·유지·발달시키며, 가족들의 정서적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년기 여성이 자녀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할 때 모자녀간 관계 만족도와 중년기 여성의 적응 수준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정유미, 김득성, 1998; Barnes & Olson, 1985)가 있으므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자녀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따라서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와 관련되어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조의 주축을 이루는 모-자녀 관계를 통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삶과 심리적 복지의 실증적인 면을 파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중요한 가족 자원 중의 하나인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저소득층 여성가장 가족 내에서 이뤄지는 가족 과정의 역동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나아가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지각한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특성이 이들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를 통해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삶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 이 연구가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위한 가족 생활 교육, 부모 교육 및 사회복지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관련 연구 고찰

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을 통제하여,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남편의 유무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저소득층 여성이나 편모의 연령과 심리적 복지와의 관계에 관련되는 연구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즉 외국연구에서는 편모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이혼 후 개인적 적응 수준이 높아

진다는 연구 결과들(Gongla & Thompson, 1987; McLanahan & Booth, 1989; Richards & Schmiege, 1993)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편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우울하다(최해경, 1997)거나, 연령과 편모의 우울감과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정현숙, 1998), 또는 연령에 따라서 우울감은 차이가 없고, 연령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신화용, 조병은, 1996)도 있다. 따라서, 연령이 저소득층 여성이나 편모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관성있는 논의가 부재하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여성이나 편모의 교육수준과 이들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지고, 적응 수준이 향상된다(김경신, 김오남, 1998; 최해경, 1997; Gongla & Thompson, 1987; McLanahan & Booth, 1989; Richards & Schmiege, 1993)고 보고되는 반면, 교육수준과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나 적응과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신화용, 조병은, 1996; 조병은 외 3인, 1998)도 있다. 즉, 저소득층 여성이나 편모의 교육수준과 이들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의 관계는 일관성있는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한편, 건강상태는 빈곤 모자가정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편모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이들의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해경, 1997). 그러나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건강상태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유무와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를 살펴본 관련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혼한 편부모와 기혼자를 비교한 외국의 연구들(Davies, Avison & McAlpine, 1997; Kitson, 1992; White 1992)을 살펴보면, 이혼한 사람이 기혼자에 비해서 심리적 복지 수준이 낮았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체로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우리 나라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의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연구(정문자, 이미리, 어주경, 1998)나 편부모 가족과 양부모 가족간의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간에 차이가 나타났다는 연구

(박충선, 정영숙, 1997)가 있다. 그러나 남편의 유무에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등의 심리적 복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어서 남편의 영향력에 대한 증거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 관계와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경우 이혼이나 사별로 인하여 배우자를 상실하였거나 질병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배우자들이 자신의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 내에서 모-자녀 관계는 부부 관계와 함께 가족 관계 구조의 중요한 축을 이룰 것이다. 저소득층 편모는 자녀를 통해서 삶의 원동력을 부여 받고 기쁨을 느낀다(김경애, 1999)고 하므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이 유지, 적응되는데 있어서 모-자녀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영향하에서 자녀나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해 왔으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가족의 건강, 화목 및 남편과 자식의 성공 등 가족 중심적 내지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옥선화, 이기춘, 이기영, 이순형, 공인숙, 1991). 우리나라 취업 여성이나 저소득층 여성 및 편모의 경우에도 이들의 대다수가 자녀 교육비 부담, 자녀 문제 상담, 자녀와의 부적절한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김경애, 1999; 박충선, 정영숙, 1997; 이배용 외 4인, 1996; 정문자, 이미리, 어주경, 1998). 이들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은 것은 배우자 상실이나 배우자와의 관계 불만족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애착이 증대된다(박충선, 정영숙, 1997)는 이유 외에도, 이들이 자녀를 통한 계층 상승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이배용 외 4인, 1996).

특히,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배우자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대

체로 단순기능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들이 자녀 보호와 양육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자녀 양육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클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열망이 높고, 빈곤의 대물림을 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 및 양육에 힘쓸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볼 때, 우리 나라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 관계가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녀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적응을 촉진시키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들에게 자녀의 의미는 특별할 것이다.

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자녀의 정서적 지원 지각과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과거에는 저소득층 여성이나 편모 가족과 자녀간의 관계 연구는 자녀의 발달 및 비행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몇몇 연구(신화용, 조병은, 1996; 조병은 외 3인, 1998)에서는 편모-자녀간 상호작용적 측면과 이들 관계의 심리적 기능을 파악함으로써 자녀가 편모의 심리적 복지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 및 편모에게 가족과의 상호작용적 특성은 이들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신화용, 조병은, 1996; 조병은 외 3인, 1998; 최해경, 1997).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가장 역시 이들에게 의미 있는 타자인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주어질 때, 이들은 심리적으로 더욱 안정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소득층 여성이나 편모에 대한 가족의 지원 연구 대부분이 자녀를 제외한 부모나 친척들로부터의 지원을 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이 이들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심리적 복지 향상 및 적응을 도와주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자녀가 갖는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지각과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모-자녀간 의사소통 연구는 주로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지각 차이 및 이것이 청소년 자녀의 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 본 연구들이 많다(민하영, 1991; 정유미, 김득성, 1998; Barnes & Olson, 1985). 한편으로는 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지각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감과 같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권혜진, 윤중희, 1993; 최규련, 1998)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지각 차이가 자녀의 심리 및 행동 발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보았다.

한편, 최근에는 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지각 차이를 가족과 관련지어 살펴보려는 연구들(김오남, 김경신, 1994; 박은주, 김경신, 1995)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기혼 여성들은 모-자녀간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길수록,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의사소통에 만족할수록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고, 가족스트레스도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오남, 김경신, 1994; 박은주, 김경신, 1995).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경우에도 자녀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경우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 이로 인한 장시간의 노동에의 참여, 가족 내 역할 분담과 직업 역할 수행으로 인한 이중 역할 부담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자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의사소통 내용도 부적절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 과정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이들 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을 파악하고, 이것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이들의 심리적 복지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은 이들의 자녀의 정서적 지원 지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은 이들의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의사소통 개방성, 의사소통 태도, 의사소통 후 만족 여부) 지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도구의 구성

1)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척도는 자신의 현재 삶의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Campbell, Converse와 Rodgers(1976)의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현재 응답자 자신이 처한 상태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나 평가를 알아보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괴로운-즐거운, 공허한-충만한 등과 같이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내용을 대립되게 제시하여 1점부터 5점 중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한 느낌과 가까운 점수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12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3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2) 우울감

우울감 척도는 John's Hopkins 대학에서 개발한 중후군 척도(SCL-90-R)를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등이 수정한 간이정신건강척도 중에서 우울항목을 선택한 진미정, 옥선화(199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예비조사 결과 문항간 상관관계 분석에서 상관이 너무 높거나 낮으며, 부적인 상관을 보여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우울감을 살펴보기에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된 2문항은 삭제하여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일주일동안 우울

의 증상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응답방식은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11점에서 5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2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3) 자녀의 정서적 지원 지각

자녀의 정서적 지원 지각 척도는 진미정·옥선화(1994)의 어머니 역할 수행부담 척도, 현은강과 조복희(1994)가 개발한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 신기영(1999)의 어머니 역할의 보상·비용 척도 및 Baruch와 Barnett(1986)의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 역할 보상·비용 척도 등에서 자녀의 정서적 지원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택하여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의 애정, 어머니에 대한 인정, 자녀와 함께하는 즐거움,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자녀의 자부심,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정신적 지원과 같은 긍정적인 지원을 묻는 문항 6개와 자녀가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음, 의사소통의 어려움,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 자녀의 성장에 따른 허무함, 어머니 역할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묻는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 5개의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방식은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방식이며, 부정적으로 묻는 문항(4번에서 7번, 12번)에 대한 응답은 역부호화하여 계산하였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11점에서 5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적 지원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4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4)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지각

(1) 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성

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성 척도는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중 어머니용 설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예비조사 결과 문항간 상관관계 분석에서 상관이

너무 높거나 낮으며, 부적인 상관을 보여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성 지각 수준을 살펴보기에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된 문항은 삭제하였다. 삭제된 문항은 의사소통의 개방성을 묻는 10문항 중에서 3문항과 의사소통의 폐쇄성을 묻는 10문항 중에서 3문항으로 총 6문항이다. 따라서 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성 지각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성과 문제성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응답방식은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문제형 의사소통을 묻는 문항(1번, 3번, 6번, 7번, 12번에서 14번)에 대한 응답은 역부호화하여 계산하였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14점에서 7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4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2) 의사소통 태도

의사소통 태도 척도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지각한 모-자녀간 의사소통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소에 자녀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방식은 평소에 자녀와 의사소통할 때 주로 보이는 태도로써 " '~해', 또는 '~하지마'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불안해서 꼬치꼬치 묻는다", "내가 말하기보다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대화를 하다보면 싸우게 된다", "자녀의 감정을 건드리기 싫어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 중 한가지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의사소통 후 만족여부

의사소통 후 만족여부 척도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모-자녀간 의사소통 후 지각한 만족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와 의사소통 후에 어떤 기분을 경험하는지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방식은 평소에 자녀와 의사소통할 때 주로 경험하는 기분으로써 "자녀가 나와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자녀와 대화를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마음 속 이야기를 충분히 못한 것 같다", "기타"

<표 1> 조사대상자들의 특성

특 성	집 단	빈도(%)	특 성	집 단	빈도(%)
연 령	30~39세	145(41.5)	건강상태	병이 잦음	30(8.5)
	40~49세	194(55.6)		건강하지 않음	96(27.0)
	50~59세	10(2.9)		보 통	163(45.9)
	계	349(100.0)		건강함	59(16.6)
				매우 건강함	7(2.0)
직 업	단순노무직	59(17.4)	자녀수	계	356(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78(22.9)		1명	134(38.5)
	단순기능직	47(13.8)		2명	187(53.7)
	부 업	76(22.4)		3명	27(7.8)
	공공근로·구직 중	36(10.6)	계	348(100.0)	
	자영업	23(6.8)	자녀의 학력	미취학	41(7.1)
기 타	21(6.2)	초등학생		235(40.5)	
계	340(100.0)	중학생		135(23.3)	
		고등학생 및 재수생		169(29.1)	
월소득	50만원 이하	142(43.6)	계	580(100.0)	
	51~75만원	98(30.1)	가족유형	모+미혼자녀	205(57.6)
	76~100만원	69(21.2)		부모+미혼자녀	119(33.4)
	101만원 이상	17(5.2)		모+미혼자녀+친족	23(6.5)
계	326(100.0)	기 타		9(2.5)	
교육수준	초졸이하	25(7.3)	계	356(100.0)	
	중 졸	81(23.8)	부담이 되는 생활비목	식료품비	33(9.6)
	고 졸	201(58.9)		주거비	68(19.8)
	전문대졸	10(2.9)		공교육비	59(17.2)
	대 졸	24(7.0)		사교육비	108(31.4)
계	341(100.0)	의료비		6(1.7)	
주거형태	자 가	35(9.8)	공과금	22(6.4)	
	전 세	126(35.4)	대출금 이자	40(11.6)	
	월 세	70(19.7)	기타	8(2.3)	
	영구임대아파트	90(25.3)	계	344(100.0)	
	친척집	22(6.2)	어려운점	경제적 어려움	209(59.9)
	복지시설	8(2.2)		자녀양육 및 교육	80(22.9)
기 타	5(1.4)	직업의 불안정		30(8.6)	
계	356(100.0)	주위사람과의 관계		11(3.2)	
		본인/가족의 건강		14(4.0)	
여성가장 된 기간	2년 미만	87(25.6)	기타	5(1.4)	
	2년~5년 미만	105(30.9)	계	349(100.0)	
	5년~10년 미만	98(28.8)	자녀의 미래에 대한 생각	대학졸업 후 취직	144(40.4)
	10년~15년 미만	42(12.4)		고교졸업 후 취직	26(7.3)
	15년 이상	8(2.4)		본인이 알아서	179(50.3)
계	340(100.0)	기타		7(2.0)	
		계		356(100.0)	
결혼 지위	사 별	77(21.6)	자녀의 미래에 대한 생각	계	356(100.0)
	이 혼	100(28.1)			
	별 거	49(13.8)			
	남편과 동거	130(36.5)			
계	356(100.0)				

중 한 가지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사별, 이혼, 별거 또는 배우자의 무직 상태로 인하여 가정의 주된 생계 부양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이다. 첫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단순노무직, 판매·영업·서비스직, 단순기능직, 수입이 불규칙한 부업 및 공공근로에 종사하고 있거나, 조사대상자가 휴직 후 3개월 이내인 여성이다.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일하는 여성의 집」 교육생, 서울특별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입주자, 종합병원·노동자 회관·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소개한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탐색조사와 예비조사를 거쳐 완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2000년 2월 14일부터 2000년 3월 18일까지 조사하였으며, 회수된 자료 중 질문지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최종 356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4. 자료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이들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자녀의 정서적 지원 지각 및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지각에 따른 이들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추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자녀의 정서적 지원 지각 및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지각에 따른 이들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의 차이를 이원분산분석과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사는 Cronbach의 α 값을 이용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두 중간 수준으로, 자신의 삶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이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같은 척도를 가지고 중년기 일반 기혼 취업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측정된 연구 결과¹⁾(신기영, 1999)나 중년기 여성의 우울감을 측정된 연구 결과²⁾(진미정, 옥선화, 1994)와 비교해 볼 때,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들의 우울감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일반 기혼 여성에 비해서 편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나 우울감 수준이 높다(김정자 외 3인, 1988; 신화용·조병은, 1996; Davies, Avison, & McAlpine, 1997)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2)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자녀의 정서적 지원 지각 및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지각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자녀의 정서적 지원 지각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성 지각 수준은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두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 가족의 경우 모

<표 2>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의 전반적 경향

N=356				
변수	평균	표준편차	척도점수범위	중간값
생활만족도	36.55	9.88	12-60	36
우울감	34.54	8.70	11-55	33

1) 중년기 전문직 취업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61.21점, 비전문직 취업 여성의 생활만족도는 55.15점(총 12 문항, 중간값: 48점)이었다.

2)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48.4점(총 10문항, 중간값: 35점), 우울감이 31.3점(총 13문항, 중간값: 39점)이었다.

〈표 3〉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자녀의 정서적 지원 지각 및 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성 지각 수준의 전반적 경향 N=356

변 수	평균	표준편차	척도점수범위	중간값
자녀의 정서적 지원	40.05	6.08	11-55	33
의사소통 개방성 수준	48.18	6.06	14-70	42

에 대한 자녀의 정서적 지원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자녀간에 의사소통이 다소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간 의사소통 현상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지각한 자녀와의 의사소통 태도, 의사소통 후 만족 여부도 함께 살펴보았다.

〈표 4〉에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간 의사소통 태도를 살펴보면, 모-자녀간 의사소통 시 명령, 간섭하거나 갈등을 경험하는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55.1%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41.8%, 자녀와 의사소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3.1%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의사소통 후 만족 여부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 53.7%, 의사소통 후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46.3%의 순이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자녀와 비교적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지각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었다. 이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자녀와 비교적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한다³⁾고 지각함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소통 태도 및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지각한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현황을 하루 평균 의사소통 시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간 평균 의사소통 시간은 하루 평균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44.8%로 가장 많았고, 1시간 이상 29.3%, 30분 미만 25.9%의 순이었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노동 시간을 고려해보았을 때, 하루 중 취업시간, 수면시간, 식사시간, 통근시간 등을 제하고 나면, 자녀와 여유를 갖고 의사소통할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장시간의 힘든 작업을 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경우 자녀와 질적으로 우수한 상호작용 시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지각한 모-자녀간 의사소통시간과 의사소통의 질적 측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4〉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간 의사소통 태도, 의사소통 후 만족 여부, 의사소통 평균 시간의 전반적 경향

특 성	집 단	빈도(%)
의사소통 태도	경청하는 태도	148(41.8)
	부정적인 태도	195(55.1)
	회피하는 태도	11(3.1)
	계	354(100.0)
의사소통 후 만족 여부	불만족	182(53.7)
	만족	157(46.3)
	계	339(100.0)
평균 의사소통 시간	30분 미만	92(25.9)
	30분 - 1시간	159(44.8)
	1시간 이상	104(29.3)
	계	355(100.0)

2.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3) 모와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 개방성 수준이 모-자녀간에 차이가 난다(김오남, 김경신, 1994; 민하영, 1991; Barnes & Olson, 1985)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자녀의 정서적 지원 및 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성을 사실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생활만족도에는 건강상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25, p<.001$), 이는 생활만족도를 7%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는 건강상태($\beta=-.36, p<.001$)와 교육수준($\beta=-.12, p<.05$)이며, 이들 변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우울감을 15% 설명하였다.

이와같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건강상태는 이들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에 영향을 미쳤다. 저소득층 여성이나 편모의 대부분은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나쁜 건강상태는 정신적 긴장감 및 압박감을 유발하며(김정자, 주준희, 김영옥, 정해숙, 1988), 직업 안정성과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쳐 이들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저하시킨다(Gongla & Thompson, 1987; Mclanahan & Booth, 1989; Richards & Schmiege, 1993). 이를 통해서 볼 때, 대부분의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단순 노동직 등 신체를 이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므로 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 실직으로 인한 생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안정된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해 병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면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심리적 복지도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우울

감에 영향을 미쳤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소득과 정적 상관 관계가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8)고 한다.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문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이를 통해서 더욱 안정적인 취업기회 및 소득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연령은 이들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를 학동기 자녀를 둔 여성가장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을 둔 편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 부담이나 이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이 덜 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미취학 유아일 경우 취업이 어렵고, 자녀 양육 부담이 커져서 편모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다(McLanahan & Booth, 1989).

또한, 남편 유무는 이들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경우 남편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대로 된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모와 심리적 복지 수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자녀의 정서적 지원 지각과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은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지각한 자녀의 정서적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졌고($F=19.94, p<.001$), 우울감은 낮아졌다($F=17.22, p<.001$).

한편, 자녀의 정서적 지원 지각 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은 남편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건강상태를 통제한 후에도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자녀의 정서적 지원 지각 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F=18.70, p<.001$) 및 우울감의 차이는 유의하였다($F=17.01, p<.001$)⁴⁾.

우리 나라 중산층 여성(옥선화 외 4인, 1991)과 저소득층 여성(박충선, 정영숙, 1997; 이배용 외 4인,

<표 5>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N=356

사회인구학적 특성	생활만족도		우울감	
	B	β	B	β
연 령	7.164E-02	.04	-.17	-.09
교육수준	8.232E-02	.02	-.43	-.12*
남편 유무 ^a	-1.79	-.09	.80	.05
건강상태	2.77	.25***	-3.55	-.36***
상수	25.76		55.75	
R ²	.07***		.15***	

* $p < .05$ *** $p < .001$

a 남편 유 : 1 남편 무 : 0

〈표 6〉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자녀의 정서적 지원 지각 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N=356

변 수	집단(빈도)	생활만족도			우울감		
		평균	F	Scheffé	평균	F	Scheffé
자녀의 정서적 지원	낮은집단(123)	33.11	19.94***	a	37.52	17.22***	a
	중간 집단(143)	36.55		b	34.36		b
	높은 집단(90)	41.24		c	30.76		c

*** p < .001

1996: 정문자, 이미리, 어주경, 1998)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모-자녀 관계가 삶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현상은 계층과 결혼 지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은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심리적 복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애, 1999; 신기영, 1999; 신화용, 조병은, 1996).

따라서, 물질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삶에서 자녀는 매우 중요한 정서적 지원 체계로서의 의미를 갖게되며,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자신의 삶에서 매우 의미 있는 타자로 지각하는 자녀로부터 긍정적인 정서적 지원을 받을 때, 이들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자신의 일과 생활에 대해 자녀가 이해해 주고, 자녀로부터 긍정적인 지지와 위로를 많이 받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되며, 삶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4.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지각과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성 지각 수준과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은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녀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한다고 지각한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폐쇄적으로 의사소통한다고 지각한 경우보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t=5.91, p<.001$), 우울감은 낮았다($t=-5.85, P<.001$).

〈표 7〉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성 지각 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의 집단 차이

N=192

변수	집단(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생활만족도	개방적(94)	40.37	8.97	5.91***
	폐쇄적(98)	32.39	9.70	
우울감	개방적(94)	30.98	8.87	-5.85***
	폐쇄적(98)	37.83	7.21	

*** p < .001

한편, 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성 지각 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은 남편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건강상태를 통제 한 후에도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성 지각 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F=36.13, p<.001$). 다음으로, 교육수준과 건강상태를 통제 한 후에도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성 지각 수준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유의하였다($F=30.26, p<.001$)⁵⁾.

저소득층 여성가장 가족은 어머니가 주 소득원, 즉 실질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의 재편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도 많이 바뀌

- 4) 공분산분석 결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중 건강상태만 자녀의 정서적 지원 지각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공분산분석 결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중 건강상태는 의사소통 개방성 지각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에, 교육수준은 우울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 되며, 이에 적응할 때까지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 또한 상당히 클 것이다. 한편, 가족 구성원들이 변화에 적응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들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가장 가족 내에서 행해지는 의사소통은 이들의 가족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이다(김오남, 김경신, 1994; 정유미, 김득성, 1998; 최해경, 1997; Barnes & Olson, 1985; Gongla & Thompson, 1987; Mclanahan & Booth, 1989; Richards & Schmiede, 1993). 따라서, 별다른 사회적 지원 체계가 없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자녀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긍정적인 모-자녀 관계를 강화,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삶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친밀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녀와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덜 경험하게 될 것이다.

2)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간 의사소통 태도, 의사소통 후 만족 여부와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은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녀와 의사소통할 때 자녀

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저소득층 여성가장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고($F=8.75, p<.001$),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보다 우울감이 낮았다($F=5.78, p<.01$). 또한, 자녀와 의사소통 후에 만족하는 경우가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고($t=4.69, p<.001$), 우울감은 낮았다($t=-2.76, p<.05$).

한편, 모-자녀간 의사소통 태도, 의사소통 후 만족 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은 남편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건강상태를 통제 한 후에도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의사소통 태도($F=7.44, p<.01$), 의사소통 후 만족 여부($F=20.96, p<.001$)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및 의사소통 후 만족 여부($F=6.96, p<.01$)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수준과 건강상태를 통제 한 후에도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의사소통 태도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유의하였다($F=5.71, p<.01$)⁶⁾.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자녀에게 명령하거나 간섭하고, 의사소통 도중 자주 싸우게 되는 등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보이고, 바

6) 공분산분석 결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중 건강상태가 의사소통 태도 및 의사소통 후 만족 여부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 후 만족 여부에 따른 우울감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교육수준과 건강상태가 의사소통 태도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간 의사소통 태도, 의사소통 후 만족 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변 수	집단(빈도)	생활만족도			우울감		
		평균	F	Scheffé	평균	F	Scheffé
의사소통 태도	경청하는 태도(148)	38.92	8.75***	a	32.82	5.78**	a
	부정적인 태도(195)	35.11		b	35.61		b
	회피하는 태도(11)	30.45		b	38.73		ab
변 수	집 단(빈도)	평균	표준편차	t	평균	표준편차	t
의사소통 후 만족 여부	불만족(182)	34.03	9.36	4.69***	35.92	8.22	-2.76**
	만 족(157)	38.88	9.63		33.34	8.98	

*** p < .001

람직하지 않은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할 때 자녀와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털어놓지 못함으로써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심리적 복지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한편, 저소득층 부모는 자녀와 학업이나 직업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김정자, 변화순, 윤영숙, 강선혜, 제갈정, 1990), 자녀를 통한 계층 상승의 희망을 갖고 자녀 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다(박충선, 정영숙, 1997; 이배용 외 4인, 1996)를 통해서 볼 때,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자녀의 발달 과정과 관련된 주제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갖게되는 고민들을 이해하고, 이에 관해서 의사소통하기보다는 주로 학업이나 직업에 대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자녀는 감수성이 예민하며, 이들의 관심 자체가 성, 외모, 이성 교제 등으로 모가 지각하는 것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가장과 이들 자녀 간에 서로 다른 관심 주제에 대하여 의사소통함으로써 의사소통 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이러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것이 두려워하여 아예 의사소통을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주변 환경이 자녀의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어머니는 자녀와 의논과 타협을 하기보다는 명령, 훈계의 방식을 자주 사용하거나(Krisberg, 1970), 욕박지르거나 소리지르고 위협함으로써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하기 쉽다(Zelkowitz, 1982). 그러므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자녀와 의사소통 중에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자녀와의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볼 때, 저소득층 여성가장들은 자녀와의 의사소통 시에 부정적인 태도와 기술을 사용하고, 자녀와 다른 관점이나 주제를 가지고 의사소통함으로써 의사소통중에 마찰을 경험하기 쉬우며, 의사소통 후 만족감도 떨어지기 쉽다. 결국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심리적 복지 수준

은 낮아지고 생활전반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심리적 복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녀와 집중적으로,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들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자녀의 정서적 지원 지각 및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지각이 이들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자녀의 정서적 지원 지각 수준이 높으면 이들의 생활만족도는 높고, 우울감은 낮다. 그리고 남편 유무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자녀의 정서적 지원 지각 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건강상태를 통제한 후에도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자녀의 정서적 지원 지각 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의 차이는 유의하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삶 전반에 대한 만족과 의미를 가족 관계,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찾고자 하며, 자녀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고, 자신의 힘든 삶을 위로 받고자 한다. 또한 이혼과 사별 등의 이유로 남편이 부재하거나 질병, 장애와 같은 심각한 원인으로 인하여 남편이 제대로 배우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자녀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정서적 지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자녀로부터의 긍정적인 지원과 자녀의 모에 대한 인정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우울, 소외, 외로움, 여성가장 됨으로 인한 디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효과적인 정서적 대처

자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자녀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한다고 지각하고, 자녀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며, 의사소통 후 만족하면, 생활만족도가 높고, 우울감이 낮다. 그리고 남편 유무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지각에 따른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건강상태나 교육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지각에 따른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의 차이는 유의하다.

이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개인적인 상황보다는 자녀와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저소득층 여성가장 자신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저소득층 여성가장과 이들의 자녀들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를 노출시키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이로 인해 이들 모-자녀가 경험하게 되는 서로에 대한 이해 수준, 애정, 심리적 안정 또한 차이가 날 것이다. 특히, 사회관계망의 축소, 상실 등으로 자녀와의 관계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경험하는 인간 관계의 주축을 이룬다. 따라서 모-자녀간의 건강하고 친밀한 의사소통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 관계를 강화하고, 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이들의 삶이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세 번째 결론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긍정적인 모-자녀 관계를 형성, 유지, 강화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친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삶은 가족 관계 중에서도 특별히 저소득층 여성가장 가족의 특성상 이들 가족의 핵심적인 가족 관계라고 볼 수 있는 모-자녀 관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교육수준, 건강상태와 같이 생활만족도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지각하는 자녀의 정서적 지원 및 의사소통 특성 변수에 따라서 저소득층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뤄진다고 지각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녀와 의사소통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소통 태도와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모-자녀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녀의 정서적 지원을 보다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자치 단체를 포함하는 공공 기관 등에서 모-자녀를 위한 상담 및 모-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방지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도 요구된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삶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에 대해 지각하는 모의 입장만을 조사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자녀와의 실제적인 관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녀의 입장 및 모-자녀간 지각 차이에 관한 비교 연구나 자녀 관련 변수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질문지를 통하여 저소득층 여성가장과 이들의 자녀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다양한 모습을 파악하기에 미진한 점이 있다. 또한 남편 유무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규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지각한 자녀의 정서적 지원 및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에 관해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남편의 존재 의미를 알아보는 등, 이들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참여 관찰 및 심층 면접 등의 질적 연구 또는 종단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조사연구를 통하여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삶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위한 가족 생활 교육, 부모 교육 및 사회 복지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권혜진, 윤종희(1993).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4(1), 167-177.

김경신, 김오남(1998). 편모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6(2), 19-34.

김경애(1999). 흔들리는 모성, 지속되는 모성역할: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여성가장. 한국여성학, 15(2), 87-115.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간이 정신진단 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김영란(1999). 여성빈곤과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한국사회학, 33, 551-583.

김오남, 김경신(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유형지각과 가족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2(3), 105-119.

김정자, 주준희, 김영옥, 정해숙(1988).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6(3), 5-43.

김정자, 변화순, 윤영숙, 강선훈, 제갈정(1990). 영세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1), 112-124.

박은주, 김경신(1995).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대한가정학회지, 33(4), 27-38.

박충선, 정영숙(1997). 편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존전략과 복지대책 방안에 관한연구. 성곡논총, 28(3), 393-450.

신기영(1999).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화용, 조병은(1996). 편모가 인지한 자원과 편모의 심리적 적응. 가족학논집, 8, 57-76.

옥선화, 이기춘, 이기영, 이순형, 공인숙(1991). 현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 40대 중산층 주부가 지각한 가정 생활의 제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29(2), 135-154.

이배용, 박진숙, 황은자, 정현숙, 이제진(1996). 여성 빈곤의 실태와 극복방안-도시 저소득층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13, 97-235.

이재립, 옥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정문자, 이미리, 어주경(1998).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제특성과 주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26.

정유미, 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산시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3), 31-45.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정현숙(1998).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 13-21.

진미정, 옥선화(1994).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5(2), 1-14.

최규련(1998).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120-142.

최해경(1997). 사회적 지지망 구조가 편부모 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377-395.

한국여성개발원(1998).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현은강, 조복희(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7.

Barnes, H. L. & Olson, D. H. (1982).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s. In D. H.

- Olson et al.,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pp. 33-48).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aruch, G. K. & Barnett, R. C. (1986).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578-585.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Y.: Russel Sage Foundation.
- Davies, L., Avison, W. R., & McAlpine, D. D. (1997). Significant life experiences and depression among single and married moth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294-308.
- Gongla, P. & Thompson, E. Jr. (1987). Single parents families. In M. Sussman & S. Steinmetz,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pp.397-418). NY: Plenum.
- Kitson, G. C.(1992). *Portrait of divorce: Adjustment to marital breakdown*. New York: Guilford Press.
- McLanahan, S. & Booth, K. (1989). Mother-only families: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557-580.
- Richards, L. N. & Schmiede, C. J. (1993). Problems and strengths of single-parent familie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Family Relations, 42*, 277-285.
- White, J. M. (1992). Marital status and well-being in Canada. *Journal of Family Issues, 13*, 390-409.
- Zelkowitz, P. (1982). Parenting philosophies and practices. In. D. Belle(ed.), *Lives in stress: Women and depression*(pp.154-162). Beverly Hills, CA: Sage.